

# 拜禮(절)에 관한 歷史的 考證

## The Historical Research into Jeol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助 教 : 表 成 恩

教 授 : 李 吉 杓

*Dept. of Home Management*

*Dept. of Home Management*

*Sung Shin Women's University*

*Sung 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 Sung Eun Pyo*

*Professor : Kil Pyo Lee*

### 目 次

####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2. 研究의 内容

#### II. 本 論

1. 절의 定義
2. 文獻에 나타난 拜禮

#### 1) 「周禮」에 나타난 절

#### 2) 「家禮輯覽」에 나타난 절

#### 3) 「星湖僊說」에 나타난 절

#### 4) 그밖의 文獻에 나타난 절

#### III. 結 論

#### 參考文獻

### = ABSTRACT =

The Korean have admired and lived with decorums through Jeol, a representative practical formality which expresses the decorums intensively. Jeol is the way of greeting native to Korea and an intangible culture close to Korean life style.

To be remained as a culture, the traditional propriety Jeol should reconcile to the present life reflecting our history. On this viewpoi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urnish the authority of the creative inheritance on the settlement of Jeol and other decorums suitable to the present.

This research is consisted of 1) the study of the meaning of Jeol and 2) the hidtorical research through records.

'Jurye' is regarded as the oldest literature on the systematic explanation about Jeol and has been very often used down the ages.

Jindong in 'Jurye' and Kodu in 'Karyejipram' are the same Jeol which expresses the grief in funeral rites.

In 'Seonghosaseol', Abae which stands one knee is explained and investigated as the

case of offense by the literature. And it is also interpreted as a Jeol with respect, while many other Jeol is to fall an both of kness, Abae is not performed generally.

'Yeki' has brief explanation about Kongsu manner (to hold hands), Jeol between the king and minister, host and guest, Buinbae, Jeol in custom, wedding ceremony and funeral ceremony, and Jeol in drinking manner. In 'Chunchukongyangjeon', there is the explanation about Jeol of the minister who comes back after his duty to the king. 'Sunjajiphae' interprets Bae and Kyesang and informs that Kyesu is the most respectful Jeol only to the king. 'Seojeon' proves the Jeol habitually used in all kinds of ceremonies and etiquettes. 'Jeongbomunheonbigo' introduces the custom of Jeol in Shilla, Koguryo, Buyeo, Koryo eras by using literature and shows the commonness of both kneeling down generall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has the meaning for the creation of life culture on the basis of the sprit 'Onkojisin' (reviewing the old and learning the new) by establishing the present Jeol with tradition.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人間的 文化와 生活狀態를 살펴보면 반드시 秩序가 있어 그 안에 先後와 本末이 있으며, 이것이 具體的으로 實踐되는 段階에 이르렀을때 비로소 이를 總括的으로 말하여 禮를 갖추었다고 한다. 禮는 人間的 實生活에 對處하는 精神作用 및 行動의 標準을 提示해 주는데 그 根本은 '禮出於情'이라 하여 마음(人情)에서 비롯된다 하였다. 또한 禮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같이 생각하지만 '禮煩則亂'이라 하여 오히려 簡素한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禮를 숭상한 우리 민족은 禮를 集約的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行動禮節인 절을 통해 禮를 생활화해왔다. 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인사법으로 우리의 生活樣式과 밀접한 無形文化라 할 수 있다.

禮가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變改되는 것과 같이 절 또한 生活樣式 및 價值觀의 차이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近代化의 물결 속에 西歐文物의 도입으로 생활양식 및 가치관이 크게 변화였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은 그대로 存續될 수 없었다. 이같은 상태는 重疊變化의 시대인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새로운 가치관이나 행동

규범이 정립되지 못한채 '禮節不在'의 혼란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傳統社會가 붕괴되고 새로운 秩序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때, 오히려 무너지는 전통 속에서나마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는 어떤 교훈을 찾고자 한다. 이때 전통의 창조적인 계승을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과의 繼續性이 있어야 하며, 계속성 있는 전통이 새로운 秩序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溫故而知新'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傳統禮節인 절이 文化로서의 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어져 내려온 歷史를 반영하고 실생활에 무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현대에 적합한 절 및 諸般 凡節의 정립에 傳統의 創造的 繼承 側面의 根據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研究의 內容

본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절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또는 자세히 論하고 있는 「周禮」, 「家禮輯覽」, 「星湖僊說」과 간략히 또는 산발적으로 절에 대해 言及하고 있는 「禮記」, 「春秋公羊傳」, 「荀子集解」, 「書傳」, 「增補文獻備考」 등이다. 이들 문헌을 통해 과거의 절의 모습을 살피기로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사용된 문헌이 각 시대별로 일관성 있게 저술된 것이 아니고, 관련된 선

행연구가 거의 全無한 상태이므로 체계적인 고찰이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 II. 本 論

### 1. 절의 定義

절은 우리 민족의 感情 表現方法, 生活習慣, 衣服차림 등에 알맞게 形成되어 전해 내려온 固有의 人事法이다. 예나 지금이나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지켜야 할 예절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인사는 모든 예절의 으뜸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사는 지나쳐도, 소홀해도 안된다 하였으니, 이는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있음을 말한다. 또한 인사는 다정하고 정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절은 상대를 공경하는 행동방식이며 그것은 일정한 격식에 의해야 상대나 남이 공경의 뜻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李吉杓 1987, 99). 本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절은 상대방을 認定하고 상대에게 敬意의 뜻을 表하는 行動禮節이라 定義하기로 한다.

### 2. 文獻에 나타난 拜禮

#### 1) 「周禮」에 나타난 절

周禮는 「儀禮」, 「禮記」와 함께 三禮의 하나로 周代의 官制를 적은 책이다. 周禮에는 절의 種類 및 方法과 揖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 (1) 절의 種類 및 方法

「周禮」의 春官 大祝에는 9가지 절의 종류를 소

개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계수(稽首)는 가장 정중한 절로서 머리가 땅에 닿아 어느정도 머무르는 절이다.

돈수(頓首)는 文武官 서로 같은 사람끼리 하는 절로 머리로 땅을 두드린다 하였으며 계수보다 빨리 하는 절을 말한다.

공수(空首)는 臣下(아랫사람)의 절에 임금(윗사람)이 답배하는 것으로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 절이다.

9가지 절 가운데 위의 계수, 돈수, 공수 3가지를 正拜라고 하였다.

진동(振動)은 손으로 땅을 치면서 절하는, 哀痛한 것을 표현하는 절이라 하였다.

길배(吉拜)는 절을 한 다음에 계상(稽顙) 하는 것으로 喪事에서 齊衰不杖 이하의 사람을 吉者라 한다고 했다. 이는 殷나라의 凶拜이며 周나라에서는 그 절하는 것이 돈수(頓首)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를 吉拜라 한다 하였다.

凶拜는 吉拜와는 반대로 먼저 계상(稽顙)하고 뒤에 돈수(頓首)하는 것이다.

振動, 吉拜, 凶拜는 모두 喪禮와 관련된 절이라 할 수 있다.

기배(奇拜)는 먼저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절로 한번만 하는 절로 설명하였다.

포배(褒拜)는 稽首를 하고나서 祭物을 올릴 때 하는 절이라 하였다.

숙배(肅拜)는 절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으로 軍中에서 이것을 행하며 부인들이 이를 바른절로 한

표 1. 「周禮」에 나타난 절의 九種

순서	절의명칭	내 용	
一	稽首	九拜中最重臣拜君之拜	三者 正拜也
二	頓首	平敵自相拜之拜	
三	空首	君答臣下拜	
四	振動	兩手相擊也	喪禮時 합
五	吉拜	拜而後稽顙	
六	凶拜	稽顙而後拜	
七	奇拜	謂一拜	祭物 올릴 때 合
八	褒拜	再拜是也	
九	肅拜	拜中最輕. 婦人亦以肅拜爲正	

표 2. 「周禮」에 나타난 揖禮法의 三種

종 류	공수한 손의 위치	해당하는 경우
土 揖	가슴 아래	지위가 같은 사람 사이에 함
時 揖	가슴	서로 姓이 다른 사람 사이에 함
天 揖	가슴 위	서로 姓이 같은 사람 사이에 함

다 하였다.

이상의 9가지 절은 모두 祭祀때 사용한다 하였다. 周禮에서 볼 수 있는 이들 절의 명칭은 그 이후 절을 언급한 문헌에서 부분적으로도 나타나며 說文解字의 拜字註에는 그대로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揖禮法

읍례법이란 서서 간단히 禮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周禮」에서는 표 2와 같이 3종류로 설명하고 있다.

土揖은 가슴보다 조금 밑에 拱手한 손을 두는 것으로 지위가 같은 사람끼리 하는 揖으로 3가지 읍례법 中 가장 가벼운 禮이다.

時揖은 가슴 위치에 공수한 손을 두는 것이며 서로 姓이 다른 사람끼리, 異姓과 婚姻 할때 행하는 揖이라 하였다.

天揖은 가슴 위에 공수한 손을 두는 가장 정중한 揖方法이다. 이는 姓이 같은 사람끼리 한다고 하였다.

또한 揖을 할때는 반드시 拱手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올리고 내림이 다 揖이라 하여 揖과 擻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2) 「家禮輯覽」에 나타난 절

家禮輯覽은 조선조 중기 沙溪 金長生이 家禮에 관한 諸家の 說을 모아 엮은 책으로 卷一에 圖說을 실어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으며, 절도 그림을 함께 提示하여 설명하고 있다.

절의 動作別로 叉手, 祗揖, 展拜, 揖禮, 拜禮의 5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과 함께 그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叉手法

叉手는 손을 맞잡는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을 보면,

원손의 엄지를 오른손 엄지 위에 얹고, 원손 새끼손가락은 오른팔을 향한다. 오른손의 네 손가락은 모두 곧게 펴고, 원손 엄지는 오른손의 엄지 위에 얹으며, 오른손 바닥이 가슴을 향하게 하되 손이 가슴에 닿지 않고 모름지기 가슴에서 약간 떨어져야 한다(金長生, 圖說, 卷二十四 葉七通卷 葉十四, 凡叉手之法以左手緊把右手大拇指其左手小指則向右手腕右手四指皆直以左手大指向上加以右手掩其胸手不可大著胸須令稍去胸二三寸許方爲叉手法也고 하였다. 원손을 위로 하여 차수한 것으로 보아 男子를 기준으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손을 가슴에 닿지 않게 한다는 것은 힘을 주어 부자연스런 자세가 되지 않도록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도 1 참조).



도 1. 叉手圖.

(2) 祗揖法

지읍법은 간략하게 공경을 표시하는 법이다. 그 방법을 보면,

揖을 할때는 발을 약간 벌려 편안히 서고 반드시 무릎을 곧게 한다. 몸을 굽혀 허리를 약간 수그리며 시선은 자기의 신발 끝에 둔다. 拱手한 손이 무릎까지 이르더라도 무릎 사이로 손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존장(尊長) 앞에서 揖을 할때는 손이 무릎아래로 내려가도록 한다. 揖을 하고는 몸을 일으키며 공수한 손을 약간 위로 올리고 끝나면

바로 가슴 앞으로 가져간다.揖을 할때는 소매 밖으로 다른손을 내놓지 말고 엄지손만 내놓는다. 읊은 간략하게 禮를 표시하는 것이지 어른을 뵈는 절은 아니다(金長生, 同面, 凡作揖時用稍闕其足立則穩揖則須直其膝曲身低其頭眼看自己鞋頭爲準威儀方美使手以只可至膝畔不得入膝內尊長前作揖手須過膝下若畢則手隨時起而又於胸前揖時須全出手不得只出一大指在袖外謂之鮮禮非見尊長之禮라고 하였다.

揖을 할때 시선은 자신의 신발끝(鞋頭)을 보라고 한데 비해 春秋左傳에서는 옷깃(襟)에서 허리 띠장식(結) 사이를 보도록 기록하고 있다(李吉杓, 104-195 面에서 재인용).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兩者 모두 시선을 아래로 들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揖을 할때 손을 내놓지 않는 것은 어른을 뵈는 조심스러운 몸가짐, 또는 옷소매가 걸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도 2 참조).



도 2. 祗揖圖.

(3) 展拜法

전배법은 절을 하는 기본동작에 대한 설명이다(도 3 참조). 즉, 한번 읊을 한뒤에 조금 뒤로 물러가서 다시 한번揖을 하고 곧 몸을 구부리고拱手한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왼발을 먼저 꿇고 오른발을 꿇어 왼쪽과 나란히 하고, 머리를 천천히 조아려 구부리고 稽首를 한뒤 일어날 때는 먼저 오른발을 일으킨다. 공수한 손을 모두(바닥에서 떼어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 놓고 다음에 왼발을 세우고 일어난다(金長生, 同面, 凡下拜之禮一揖小退再一揖即俯伏以兩手齊按地先跪左足次屈右足略



도 3. 展拜圖.

표 3. 「家禮輯覽」에 나타난 揖禮法의 三種

종류	자 세	해당하는 경우
上禮	몸을 구부리며 공수한 손을 눈아래까지 올렸다 내림	아랫사람이 윗어른께
中禮	몸을 구부리며 공수한 손을 입아래까지 올렸다 내림	약간 손윗사람께, 또는 평교간에
下禮	몸을 굽히지 않고 공수한 손을 가슴높이로 올렸다 내림	윗어른이 아랫사람에게

躡還左畔稽手至地即起先起右足以雙手齊按膝上次起左足連兩拜起進前敘寒暄少退揖再兩拜進前卻敘間闊賀語不然初連四拜卻敘寒暄亦得고 하였는데 일어나는 동작에서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일어서는 것은 다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두 무릎을 들고 손을 바닥에서 떼는 拜方法과 구별되는 한 方法이라 하겠다.

(4) 揖禮法

읍례법은 서서 간단히揖으로 禮를 표하는 것을 말한다. 家禮輯覽에서는 읊례에 관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上禮, 中禮, 下禮의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도 4 참조).

上禮; 하관(下官)은 몸을 구부리며 읊을 한 맞잡은 손을 가지런히 눈아래까지 올리고 눈은 아래를 내려다 보며 예의를 표시하고 가슴높이로 내려서 멈춘다. 이때 上官은 答禮는 하지 않는다(金長生, 同面, (上禮) 下官躬身舉手眼下致敬上官隨生隨立無答).

中禮; 下官은 몸을 구부리며 입아래까지 손을



도 4.揖禮圖.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 보며 공경을 표시한다(金長生, 同面, (中禮) 下官躬身舉手齊口下致敬).

下禮: 上官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맞잡은 손을 가슴높이로 올렸다 내리며 마음속으로 답禮한다(金長生, 同面, (下禮) 上官舉手齊心答禮고 하여 상대에 따라 禮를 표하는데 구분이 있음을 밝혔다.

上禮는 아랫사람이 웃어른께, 中禮는 약간 손윗 사람에게, 또는 平交間에 하는 揖禮이며 下禮는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읍례에 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上禮, 中禮, 下禮는 각각 周禮의 天揖, 時揖, 土揖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拜禮法

배례법은 6가지의 절을 소개하고 이들이 활용되는 예를 몇가지 밝히고 있다. 즉 稽首, 凶禮, 叩頭, 頓首, 控首, 肅拜가 그것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 5 참조).



도 5.拜禮圖.

계수는 머리를 구부려 이마가 손에 닿게 하고 엎드려서 한참 있다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金長生, 同面, (稽首) 謂拜下額按至手伏久方起謂之稽手稽遲也)이라 하였다.

周禮에서의 계수와 같은 설명으로 다만 周禮에서는 머리를 땅에 닿도록 한데 비해 家禮輯覽에서는 이마가 손에 닿게 한다 하였다. 이는 숙이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손을 멀리 짚거나 가까이 짚은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凶禮는 먼저 拜禮를 하고 뒤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먼저 頓首(頓首)를 하고 뒤에 머리를 조아린다. 단 머리가 땅에 닿지 않아 이를 계상(稽顙)이라 한다(金長生, 同面, (凶禮) 拜而後稽顙謂先作頓首後作稽顙還是頓首但觸地無容謂之稽顙).

고두(叩頭)는 손을 나누어 땅을 짚고 머리로 세 번 땅을 치는 것이라 하였다(金長生, 同面, (叩頭) 叩頭謂拜下以手分按地用頭叩地者三). 이는 周禮의 振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頓首는 배례시 머리가 손에 닿게 하며 바로 일어나는 것이고(金長生, 同面, (頓首) 謂拜頭至手即起 控手는 머리가 손에 닿지 않게하고 바로 일어나는 것이다(金長生, 同面, (控手) 謂拜下頭不至手即起).

肅拜는 양무릎을 모아 꿇고 허리는 펴고, 머리는 낮추고 엎드리면서 손을 내려 머리가 땅에 닿지 않게 한다. 拜禮 중에서 가장 經한 것으로 軍中에서 이런 숙배를 하고 있다. 婦人의 절에서도 이 숙배를 바른절로 한다고 하였다(金長生, 同面, (肅拜) 兩膝齊跪伸腰低頭俯引其手而頭不地拜中最輕惟軍中有此肅拜婦人亦以肅拜爲正). 이로 미루어 女子의 절은 두 무릎을 모두 꿇고, 상체는 깊이 숙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숙배는 여자의 절뿐만 아니라 남자의 절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절을 하는 몇몇 경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신하가 임금의 뵈는 禮로는 먼저 계수를 四拜하고 고두 一拜를 한다(金長生, 同面, (稽首五拜) 臣下見上之禮先稽首四拜後叩頭一拜).

百官의 東宮에 대한 禮는 稽首 四拜로 한다(金長生, 同面, (稽首四拜) 百官見東宮之禮).

문무관의 品階에 따라 下官은 아래에서 頓수를

하고 上官은 控首再拜로 답례한다(金長生, 同面. (頓首再拜) 文武官品從相次者下官居下頓首拜上官居上控首再拜答禮).

공수재배는 官 등이 같은 자가 平交禮로서 相見禮를 하는 것이다(金長生, 同面. (控首再拜) 官品相等者平交相見之禮也).

子孫, 第姪, 甥胥들이 어른을 뵈올 때, 제자가 스승을 뵈올 때, 奴僕이 관리에게 하는 禮는 돈수 四拜이며 친척 등 향렬이 같은 사람끼리는 돈수재배를 한다고 하였다(金長生, 同面. (子孫弟姪甥胥見尊長生徒見師範奴僕見本使行頓首四拜禮長幼親戚依等次行頓首再拜禮).

이를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 3) 星湖儀說에 나타난 절

星湖儀說은 조선조 숙종때 星湖 李瀾이 지은 것으로 天地, 萬物, 經史, 詩文 等の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절에 관한 내용으로는 여러가지를 주제로 삼아 고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拜禮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다소 멀어진 절에 대해 禮와 敬을 결부시켜 그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古者致敬則必拜不獨相見也相見而拜禮之始也相別而拜敬之餘也無端來去敬將何寓禮之懷必自不拜始君子慎焉……).

또한 일반화 되었던 절을 좀더 간소한 방법인

揖으로 대신하게 된 것을 밝히고 있는데(…今朝儀惟除官外無拜凡入侍者出入只有曲拜…) 이는 제반 규범이 그 사회의 가치관 및 현실에 관련되어 있다는 면에서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叉手는 손 맞잡는 법의 설명이 家禮輯覽의 叉手圖 설명과 동일하다. 다만 이에 덧붙여 불교 신도의 참선법을 예로 들어 왼손이 비록 오른손을 잡았으나 오른손의 손가락을 모두 위로 향하여 꾸부러 서로 껴안은듯 했으니,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모두 곧은 것이 아니었다(左手雜掩右手而右手之指必皆捲以向上略如抱持撓非四前賢寫眞拱手狀指皆直也)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揖禮는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음례로 정중히 예를 표한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에 반해 전체적인 사회풍속은 각박하다는 내용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膜拜는 손보다 무릎이 먼저 닿는 것이 일상적인 절과 다른점이며 이는 현재 寺刹에서 볼 수 있는 절의 源流로 볼 수 있다.

振動은 周禮의 四日振動에 ‘두손으로 마주 치는 배례’라고 되어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稽手, 頓首, 空首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星湖가 생존했던 18세기 전반에는 이 세 가지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주로 空首(兩手拱至地乃頭至手不至地曰空首)의 유형이 행해졌음을 밝

표 4. 「家禮輯覽」에 나타난 절의 六種

拜禮種類	拜禮方法	例示한 경우
稽首	머리를 구부려 이마가 손에 닿게 하고 엎드려서 한참 있다가 일어남	신하가 임금에게(四拜)
叩禮	먼저 頓首를 하고 뒤에 머리를 조아림	
叩頭	손을 나누어 땅을 짚고 머리로 세번 땅을 침	신하가 임금에게 稽首 四拜하고 나서 叩頭一拜
頓首	拜禮時 머리가 손에 닿게 하여 바로 몸을 일으킴	下官이 上官에게, 尊長·스승·주인에게(四拜), 같은향렬 친척끼리(再拜)
控首	拜禮時 머리가 손에 닿지 않게 하고 바로 일어남	上官이 下官에게 答禮할 때
肅拜	양무릎을 모아 꿇고 허리를 펴고 머리는 낮추고 엎드리면서 손을 내려 머리가 땅에 닿지 않게 함	

표 5. 「星湖(儀說)」에 나타난 절의 分析

절에 관한 사항	출 처	考證에 인용된 文獻	內 容
배(拜)	卷之十三 人事門	없 음	禮의 始初인 절은 儀禮는 물론 日常生活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論 함.
오패(揖禮)	卷之十一 人事門	없 음	御醫 權聖徵과의 일화를 통해 禮를 설명하고 그 당시 風俗의 각박함을 論 함.
차수(叉手)	卷之十一 人事門	없 음	그 당시 손 마주잡는 법을 설명하고, 불교신도의 참선법과 선현의 영정 앞에서 의 자세에서 옛사람의 손 마주잡는 법을 추측하여 論 함.
모배(膜拜)	卷之九 人事門	唐史, 字書, 穆天子傳	부처에게 禮할 때 하는 절로 길게 꿇고 절하며 이는 지금 승려들이 합장 하고 절하는 것과 같고 胡人の 절이라 함.
진동(振動)	卷之九 人事門	周禮, 書經	계수·돈수·공수를 설명하고 第四拜인 진동을 論 함. 진동은 몸을 일으 켜 꿇고 엎드리는 절과는 달리 앉은 자세에서 안색을 바꾸어 허리를 굽 혀 공경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酒禮에서 손과 주인이 앉아서 몸을 굽 히는 禮를 이의 類로 보았음.
기배(奇拜)	卷之十一 人事門	周禮, 禮疏	한쪽 무릎을 꿇고 한번하는 절로 간단한 禮에 속함.
사배(四拜)	卷之八 人事門	周易, 儀禮, 孟子	男女의 절짓수가 다른 것을 周易의 陰陽原理로 설명하고, 두번씩 따로 절하여 四拜하는 경우들을 論 함.
협배(俠拜)	卷之十二 人事門	語類, 士婚記	男子가 한번 절할 때 女子가 두번 절하는 俠拜를 婚禮와 冠禮를 통해 절 짓수를 중심으로 論 함.
부인배(婦人拜)	卷之十三 人事門	古樂府, 詩經	무릎, 손, 머리가 땅에 닿는 자세를 기본전제로 하고 머리장식 때문에 고 이 숙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論 함.
백배(帛拜)	卷之九 人事門	없 음	婦人拜의 일종으로 시부모를 처음 뵈 할 때 하는 절이며 이에 관련하여 論 함.
영남배례(嶺南拜禮)	卷之十三 人事門	家禮, 小學	日常의 禮로서 절이 행해진 영남의 拜禮 風俗을 士風으로 보아 벗가지 사례로써 이를 論 하고, 人一體一拜를 설명하여 영남배례의 마땅함을 주 장 함.
아배(雅拜)	卷之二十六 經史門	漢書, 論語, 語類	들어서서 한무릎을 세우고 절하는 雅拜를 지극한 공경의 뜻과 죄를 얻어 서 한다는 상반된 두가지 측면에서 언급된 것을 들어 論 함.
단배(端拜)	卷之二十二 經史門	丘氏儀書式, 洪武三年詔書	편지끝에 쓰여진, 실체는 행해지지 않은 拜와 관련된 어휘들을 論 함.
개자불배(介者不拜)	卷之二十三 經史門	禮記, 尉繚子	갑옷을 입은 군사는 풍손한 예로 남에게 낮추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뜻 을 論 함..



하고 있다. 진동의 고증 내용은 진동을 선자세에서 꿇고 다시 일어나는 절의 모든 동작 중에 앉은 이후의 상반신의 동작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함께 앉아 대화하다가 얻는 바가 있으면 감사의 표현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안색을 바꾸어 상반신을 숙이는 것도 진동의 한가지 예라 하였다. 다만 周禮의 註에 兩手相擊也라고 한것을 고증 했다하나 이 註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奇拜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절 가운데 가벼운 禮에 속하는 것으로 두무릎 모두 꿇지 않고 먼저 한쪽 무릎을 꿇고 한번 절하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무릎 모두 꿇는 것이 보다 정중한 禮임을 짐작할 수 있다.

四拜는 배례의 종류는 아니고 절 횟수를 중심으로 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俠拜 역시 절횟수와 관계되는 것으로 남자가 한번 절할 때 여자가 두번 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兩者間의 관계에 따라서도(부모-자식, 신랑-신부, 장모-사위... 등) 그 횟수가 달라진다 하였다. 이는 異性原理에 위계절서도 가미되어 절하는 횟수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婦人拜에서는 주로 상반신을 숙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보인다. 跪, 拜手, 稽首로 설명하여 두 무릎은 꿇고 손은 땅에 닿으며 상반신을 깊이 숙이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머리장식이 있는 경우는 깊이 숙이지 않았는데 이는 절의 모습이 생활습관에서 비롯되었고 또 적절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예는 儀禮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머리장식 역시 禮를 표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해서 禮가 減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

려운 듯하다.

帛拜는 여자가 시부모를 처음 뵈때 五色 실로 된 끈을 들고 절하는 여자절의 한 종류로 폐백절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폐백절이 拱手한 채로 숙이는 것에 비해 星湖가 언급한 절은 공수한 손을 땅에 내리되 고개는 살짝 숙인다고 하였다. 이는 절하는 新婦의 머리장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嶺南拜禮에서는 이를 土風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몇가지 예를 들어 尊長者가 있게 마련인 일반 가정에서 절은 흔히 볼 수 있는 禮임을 밝혔다. 또한 대개 선비의 귀중하게 여기는 바는 禮에 있고, 禮의 用은 절하는 것으로 먼저를 삼는데, 먼저 절하고 꿇는 것부터 폐지한다면 그 나머지는 뻥한 것이다(...土之所貴在禮禮之用以拜爲先先廢拜跪餘可知矣...) 하여 절이 禮를 代表하는 核心이자 始初임을 강조하고 있다.

雅拜는 한무릎을 세우고 돌아서서 하는 절을 말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특수한 경우(罪를 지은 경우)의 절로 설명할 수 있다.

端拜는 실제로 하는 절의 명칭이 아니고 편지글에서 사용된 용어로 소개 되었다.

介者不拜는 갑옷 입은 군사는 勇猛을 장려하기 위해 뒷사람에게도 허리굽혀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군복 등 制服을 착용하면 몸을 굽히지 않고 꼳꼳한 자세에서 擧手敬禮를 하는데 이는 여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상에서 李漢의 星湖僊說을 통해 18세기 전반의 제반 拜禮를 살펴 보았다. 현재 듣기에는 생소한 이들 각종 배례는 時代相의 변화와 함께 傳統 禮節로서의 절의 면모를 보여준다.

표 6. 기타 5가지 문헌에 나타난 절

書名	年代	절에 관련된 내용
禮記	周末~秦漢	拱手法, 君臣·賓主間의 절, 婦人拜, 冠·婚·喪禮에서의 절, 酒道에서의 절
春秋公羊傳	魯나라때	君臣間의 절
荀子集解	燕나라때	拜와 稽顙을 설명, 稽首는 君主에게만 하는 拜禮임을 설명
書傳	宋나라때	'拜手稽首'라는 말이 반복 사용됨.
增補文獻備考	隆熙二年	各各 다른 문헌을 인용하고 신라, 고구려, 백제, 부여의 절 風俗을 언급

표 7. 절에 관한 文獻의 概略的인 內容(年代順)

書名	著者	年代	관련내용에 인용된문헌	절에 관련된 內容	사용된 절 用語
禮記		周末~秦漢	없음	拱手法, 君臣·賓主間的  절, 婦人拜, 冠婚喪禮에서의  절, 酒道에서의  절	扶, 再拜, 稽首, 答拜, 手拜, 禱拜, 稽顙, 吉拜, 揖, 拜至, 拜受, 拜送, 拜既
春秋公羊傳	公羊高	魯나라	없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신하의 임금에 대한  절拜와 稽顙 설명, 稽首는 君主에게만 하는 禮임을 설명	再拜, 稽首, 拜手 平衡, 下衡, 稽首, 稽顙
荀子集解		燕나라	없음	• 9가지의  절을 소개하고 각각 설명 稽首, 頓首, 空首...三者 正拜也 振動, 吉拜, 凶拜...喪禮時 奇拜, 褒拜(祭物 올릴때), 肅拜(軍·婦人拜) • 土揖, 時揖, 天揖의 3가지 揖禮法 설명.	稽首, 頓首, 空首, 振動, 吉拜, 凶拜, 奇拜, 褒拜, 肅拜, 稽顙, 土揖, 時揖, 天揖,
周禮		漢나라	없음	정중한 禮로 「拜手稽首」를 자주 언급함.	拜手, 稽首
書傳	孔子篇→蔡沈이 註解	宋나라	없음	절에 관련하여 禮를 5가지로 나누어 그림과 함께 설명함. 1. 叉手法, 2. 祗揖法, 3. 展拜法, 4. 揖禮法(上禮·中禮·下禮) 5. 拜禮法(稽首, 凶禮, 叩頭, 頓首, 控首, 肅拜)	叉手, 祗揖, 展拜, 揖禮, 拜禮, 上禮, 中禮, 下禮, 稽首, 凶禮, 叩頭, 頓首, 控首, 肅拜
家禮輯覽	沙溪 金長生	孝宗 10年 (1659)	없음	절에 관련된 주제를 정해 고증함. • 拜 • 揖禮 • 叉手 • 膜拜 • 振動 • 奇拜 • 四拜 • 快拜 • 婦人拜 • 帛拜 • 嶺南拜禮 • 雅拜 • 端拜 • 介者不拜	曲拜, 叉手, 揖禮, 膜拜, 稽首, 頓首, 空首, 振動, 奇拜, 四拜, 快拜, 再拜, 婦人拜, 跪, 拜手, 帛拜, 肅拜, 六拜, 雅拜, 百拜, 萬拜, 介者不拜
星湖(塞說)	星湖 李漢	1723년경	唐史, 字書, 穆天子傳 周禮, 書經, 禮疏, 周易 儀禮, 孟子, 語類, 士婚記, 詩經, 古樂府, 家禮, 小學, 漢書, 論語, 禮記, 尉繚子, 丘氏儀書式, 洪武三年詔書	문헌을 이용하여 신라, 고구려, 부여, 고려의  절 풍속을 소개함	跪, 拜
增補文獻備考	朴容大, 趙昇九 등 30여명이 撰	隆熙二年 (1908)	通典, 北史, 三國志, 鷄林類事		

#### 4) 그밖의 文獻에 나타난 절

위에서 절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헌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절에 대한 내용은 그 자체의 체계적인 설명이 아니더라도 단편적이거나 몇가지 문헌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문헌은 표 6에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 몇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禮記」의 檀弓上에서 볼 수 있는 拱手法에 關한 內容은 男子의 경우 平常時에는 왼손을, 喪中에는 오른손을 위로 拱手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禮記, 檀弓上, 孔子與門人立拱而尚右二三子亦皆尚右, 孔子曰二三子之嗜學也, 我則有姊之喪故也二三子皆尚左).

또한 「禮記」 內則에서는 절을 할 때의 拱手法이 男女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凡男拜尚左手라 하여 모든 男子가 절을 할 때는 왼손을 위에 놓고 한다 하였고, 凡女拜尚右手라 하여 모든 女子가 절을 할 때는 오른손을 위에 놓고 한다고 하였다. 禮記의 曲禮 下에서는 大夫나 士가 다른 나라의 임금을 뵈을 때 그 임금이 使臣의 勞苦를 致賀하면 뒤로 두세발짝 물러나 再拜하고 稽首한다(大夫士見於國君君苦勞之則還辟再拜稽首) 하였다. 이에 덧붙여 男女相答拜라 하여 男女間에 상대가 절을 하면 맞절하는 것을 예의로 삼았다.

婦人拜로서 肅拜는 머리를 수그리고 손을 내려서 하는 절로, 女子는 吉事에는 肅拜를 하고 凶事에는 手拜를 한다 하였으며 手拜는 손을 땅에 대고 머리가 손위에 오도록 하는 절이라 하였다(禮記, 少儀, 婦人吉事雖有君賜肅拜爲屍坐則不手拜肅拜爲喪主則不手拜).

喪禮에 있어서 喪主가 弔客에 대하여 절을 할 때 稽顙하는 것은 슬픔의 표시이다. 稽顙은 지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禮記, 檀弓下 拜稽 哀戚之至隱也稽顙隱之甚也)이라 하였으며 절한 뒤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稽顙)은 禮節의 順序이다, 머리를 조아린 뒤에 절하는 것은 哀痛함이 至極하기 때문이라(禮記, 檀弓上, 孔子曰拜而後稽顙頹乎其順也稽顙而後拜頹乎其至也) 하였다.

이밖에도 禮記에서는 각종 儀禮 및 酒道에서의 절도 언급하고 있다. 春秋公羊傳의 宣公 六年條에

는 趙盾(趙盾)이 순시하고 돌아와서 北쪽을 바라보고 再拜, 稽首하였다(宣公六年條, 趙盾逡巡北面再拜稽首)는 대목이 보인다. 여기서 稽首는 머리가 땅에 닿는 것이고, 拜手(拜手)는 머리가 손 위에 닿는 것이라 하였다.

「荀子集解」의 大略篇에도 양손을 拱手하고 그대로 머리를 숙이는 예를 拜라 하고, 이마를 땅에 대는 禮를 稽顙이라고 한다 하였다.

大夫의 臣下가 主人인 大夫에 대하여 拜禮를 하고 稽首의 禮를 行하지 않는 것은 臣下가 大夫를 尊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本來 稽首는 君主에 對한 禮이기 때문에 君主를 생각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至地曰稽顙, 大夫之臣, 拜不稽首, 非尊家臣也, 所以辟君也)고 한것을 볼 수 있다.

「書傳」에는 몇군데에서 拜手稽首 라는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즉, 伊尹拜手稽首(太甲中), 周公曰拜手稽首旅王若公(周書 召誥), 王拜手稽首曰…拜手稽首誨言(周書 洛誥), 周公拜手稽首曰朕復子明辟(周書 洛誥), 周公拜手稽首曰王命…(周書 洛誥), 拜手稽首休享(周書 洛誥), 周公若曰拜手稽首告嗣天子王矣(周書 立政) 등의 구절을 볼 수 있다. 여기서 拜手稽首의 拜手는 머리가 손에 이르는 것, 稽首는 머리가 땅에 이르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매우 정중한 拜禮法이라 하겠다.

이밖에 「增補文獻備考」에서도 몇가지 古代의 절 風俗에 關해 적고 있다. 즉, 孫목(孫穆)의 계림유사(鷄林類事)에 이르기를, “軍民이 國官(관리)을 보면 매우 恭敬하고 보통은 꿇어 앉으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을 하면 아버지는 답으로 반쯤 禮하고, 僧尼에게는 땅에 나아가 머리를 숙이고 대하여 절한다”하였다(卷之八十四, 禮考三十一, 孫穆鷄林類事云軍民見國官甚恭尋常則胡跪而坐子拜父父答而半禮僧尼就地低頭對拜).

通典에 이르기를 “新羅의 風俗은 사람을 만나볼 적에 반드시 꿇어앉아 두손으로 땅을 짚는 것으로 恭遜함을 삼는다”하였다(通典曰新羅俗見人必跪以兩手據地爲恭).

北史에 이르기를, “高句麗 風俗은 容止(몸가짐)를 崇尚하고 빨리 나아가는 것으로 恭敬함을 삼으며, 절을 하면 한쪽 다리를 뻗치고, 서면 팔짱을

많이 끼며, 다니면 반드시 손을(소매에) 꽂는다” 하였다(北史曰高句麗俗尚容止以移走爲敬拜則曳一脚立多反拱行必插手).

北史에 이르기를, “百濟사람의 拜謁하는 禮는 두손으로 땅을 짚는 것을 禮로 삼는다”하였다(北史曰百濟之人拜謁之禮以兩手據地爲禮).

三國志에, “扶餘 사람은 譯人의 말을 전할 적에는 꿇어 앉아서 손으로 땅을 짚는다”하였다(三國志扶餘人譯人傳辭則跪以手據地).

이들 내용을 보면 대체로 무릎을 꿇는 것이 常禮이며 고구려에서는 약간 색다른 풍속을 보여 줌을 알 수 있다.

### III. 結 論

절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경의의 뜻을 표하는 행동예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쁠때나 슬플때 먼저 절을 하고 말을 하는 정중한 인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절이 우리민족의 오랜 역사와 함께 전해 내려온 행동규범이자 생활문화임을 말해준다. 절은 생활예절 중에서도 함축성 있게 禮가 표현된 행동예절로서 경우에 따라 적절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분별이 있음을 보았다. 문헌을 통해 볼수 있었던 우리의 절은 현재보다 더 다양하고 보편화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변화상은 시대의 변천, 그리고 예의 형식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표 7로 정리하였다.

周禮에서는 계수, 돈수, 공수, 진동, 길배, 흉배, 기배, 포배, 숙배의 9가지 절을 소개하고 각각의 절하는 방법 및 절하는 경우도 설명하였다. 또한 揖禮法을 상대에 따라 土揖, 時揖, 天揖의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周禮의 辨九拜에 있는 이들 내용은 그 역사로 비추어, 또는 後世文獻에 자주 인용된 것으로 보아 절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家禮輯覽은 조선조 효종 10년 沙溪 金長生이 엮은 것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림과 설명을 붙여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은 叉手, 祗揖, 展拜, 揖禮, 拜禮의 5가지로 이

중 揖禮의 上禮, 中禮, 下禮는 周禮의 天揖, 時揖, 土揖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拜禮에서는 계수, 흉배, 고두, 돈수, 공수, 숙배의 6가지를論하고 있는데 이중 叩頭는 周禮의 振動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히 임금에게 절할때 稽首를 하고 나서 하거나 凶禮에서 슬픔을 表하는 절로 행해졌다.

星湖僊說에서는 절에 대한 주제를 여러가지로 삼아 고증하고 있다. 그 주제는 拜, 揖禮, 叉手, 膜拜, 振動, 奇拜, 四拜, 伏拜, 婦人拜, 帛拜, 嶺南拜禮, 雅拜, 端拜, 介者不拜 등이다. 특히 아배의 고증에서는 罪를 얻은 경우와 공경을 더한 경우 돌아서서 한무릎 세우고 하는 절이라 하였다. 이로 미루어 한무릎 세우는 절은 특수한 경우에 하며 두무릎 꿇는 절이 보편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禮記에서는 拱手法, 임금과 신하, 주인과 賓 사이의 절, 婦人拜, 冠·婚 喪禮에서의 절, 그리고 酒道에서의 절을 간략히論하였고, 春秋公羊傳에서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신하의 임금에 대한 절을 설명하고 있다. 荀子集解에서는 拜와 稽顙을 설명하고 계수는 임금에게만 하는 가장 정중한 拜禮임을 밝혔다. 書傳에서는 거의 관용어로 ‘拜手稽首’를 쓰면서 크고 작은 모든 禮에 절이 습관적으로 행해졌음을 나타내었다.

增補文獻備考에서는 신라, 고구려, 부여, 고려의 절 풍속을 문헌을 이용하여 소개 하였으며 대체로 두무릎을 꿇는 것이 공통점임을 볼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절에 대한 개념 및 전통과 脈을 같이 하는 현대의 절을 정립하여 溫故知新的 정신으로 生活文化를 創造 하는데 그 意義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좀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考證이 필요하며 그 연구내용이 각종 생활관이나 예절교육의 담당자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져 실제 교육에 반영되어야 할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권이구 : 전통적 생활양식의 생태학적 측면. 韓國 精神文化研究院 研究論叢 84-13 : 1984
- 2) 金光彦 外 3人 : 家庭儀禮大百科. 서울 : 韓都文化

- 社, 1983
- 3) 金長生：家禮輯覽.
- 4) 論語
- 5) 大漢和辭典 卷五：東京：大修館書店, 昭和 51：1974
- 6) 문교부：기본 생활습관 지도자료-학교 교육용：장학자료 37：1984
- 7) 閔泰植：禮의 形而上學. 韓國孔子學會, 孔子思想과 現代. 서울：思社研, 1985
- 8) 成均館大學校 儒學科 教材編纂委員會：儒學原論.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87
- 9) 成均館 韓國青年儒道會：한배움. 서울：合同教材公社, 1984
- 10) 李 漢：星湖僊說.
- 11) 荀子集解
- 12) 申貞淑：韓國傳統社會의 女性生活文化. 서울：大光文化社, 1984
- 13) 沈在龍：韓國의 傳統思想. 서울：博英社, 1984
- 14) 禮記
- 15) 예서원 편집국：禮. 서울：영재교육사, 1986
- 16) 柳正基：救世의 思想과 文化의 堡壘. 서울：通文館, 1984
- 17) 李光奎·李柱鉉：韓國生活史. 서울：서울大學校 出版部, 1977
- 18) 李吉杓：古禮의 절. 第三回 全國茶生活指導者研修會紙. 韓國 茶人聯合會, 1987
- 19) 李 珥：擊蒙要訣
- 20) 李能和：朝鮮女俗考
- 21) 趙圻拱 外 共著：禮論. 서울：誠信女子大學校 出版部, 1983
- 22) 趙南國·趙南旭 編譯：聖學과 敬. 서울：養英閣, 1982
- 23) 周禮
- 24) 周易
- 25) 金碩鎮 著. 重山學會 編：周易과 世界. 서울：東信出版社, 1988
- 26) 직장여성 예비부모교육 지도서：새세대육영회 부설 연수원
- 27) 최민홍：「한」철학-한민족의 정신적 뿌리-. 서울：성문사, 1984
- 28) 春秋公羊傳
- 29) 退溪學界消息：No. 47~52 退溪學研究院, 1988
- 30) 한국도덕과학연구협회：새도덕 52, 1988
- 31) 黃性模：合理主義와 東洋的 價値觀. 세계평화교수협의회. 東洋思想과 韓國의 비전. 서울：一念, 1987